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지하철 1호선이 데려다 준 곳

- 인천 답동성당과 옛 시민회관 -



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인천행 국철이 정거장에 설 때마다 찬 기운이 전차 안으로 우악스럽게 밀려온다.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인천행 국철을 탈 때마다 신산스러운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그런 느낌에 사로잡힌다. 정오 즈음이어서 전철 안은 그다지 붐비지 않는다. 맞은편 창 밖으로 허름한 풍경들이 지나간다. 창 밖의

건물들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외투를 걸친 모습이다. 저 풍경을 하루에 꼬박 두 번씩 보면서 서울과 인천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체격은 건장하지만 걸음걸이가 불안한 청년이 큰 목소리로 말한다. 고아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고아원에서 지내기에는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하지만 승객도 청년도 그런 점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승객은 별로 없지만 서울의

지하철보다 수입은 좋아 보인다. 청년은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다음 칸으로 건너간다. 이것이었던가. 신산스러움의 정체는, 또한 인천행 국철만이 보여주는 매력은.

인혁당 구명운동 펼친 시노트 신부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외투 깃을 세운 채 종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는 판판이다. 양쪽으로 자리잡은 상가는 불을 환히 밝혔으며 색색의 간판들에 눈이 부시다. 인천 시민들은 죄다 지하로만 다니는지 인파에 섞여 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다. 지하도를 빠져나와 다시 찬바람이 부는 지상으로 올랐다. 동인천역에서 오 분 남짓 거리에 가톨릭회관이 있다. 가톨릭회관 왼쪽 골목으로 접어들면 답동성당으로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제법 가파른 길이다. 그 길이 왼쪽으로 굽어지는 곳에 작은 주차장이 있고 두 채의 천막이 서 있다. 대우자동차 판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농성장이다. 마치 명동성당 입구에 온 듯한 기분이다.

그곳을 지나쳐 조금 더 오르면 널찍한 공간이 나온다. 주변에 높다란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항구에서도 답동성당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답동성당은 웅크리고 있었다. 서 있으면 너무 커 보인다. 엎드려 있으면 너무 작아 보인다. 하지만 웅크리고 있으면 커 보이기도 작아 보이기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으리라.

고종 24년인 1887년 한불조약이 비준되자 파리 외방선교회는 빌렘(홍석구) 신부를 인천 초대 본당 신부로 임명하였다. 빌렘 신부는 1890년 바로 이곳 답동 언덕에 터를 마련하여 성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성당은 빌렘 신부의 후임인 르비엘(신삼덕) 신부가 본당 신부를 맡고 있던 1895년에야 완공되었다. 신도가 늘어나자 1937년 4대 본당 신부로 부임한 드뇌(김학준) 신부가 원래의 건물 외곽에 벽돌을 쌓아올리는 개축



가톨릭회관 뒷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한걸음 쉬고 나면 왼편에 성당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사를 하였다. 지금의 답동성당은 1937년에 완공된 모습 그대로이다. 원래 답동성당부터 따지자면 백 년을 훌쩍 뛰어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백 년이 넘도록 눈과 비, 바람을 견딘 성당답게 견고해 보인다.

답동성당은 인천지역 가톨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성당 왼편으로는 인천교구청이 자리잡고 있다. 그 뿐만은 아니다.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종 집회가 치러지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시위대와 수배자의 도피처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특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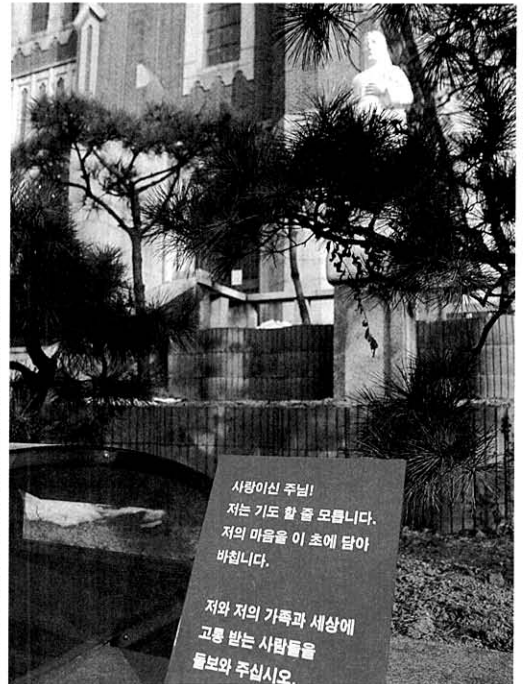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 답동성당을 뒤로 한 길가에는 가톨릭회관이 있다.



▶ 답동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인천교구 부주교를 역임한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뒤, 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사랑이신 주님!
저는 기도 할 줄 모릅니다.
저의 마음을 이 초에 담아
바칩니다.

저와 저의 가족과 세상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을 때, 인혁당 관련자들을 구명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시노트(진필세) 신부 역시 답동성당의 보좌신부였다. 시노트 신부는 미국 메리놀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61년부터 답동성당의 보좌신부로 지내왔으며 인천교구 부주교를 역임했다. 1975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혁당 관련자 가운데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스무 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당하고 말았다. 다음날인 4월 10일, 경찰은 사형수들에게 가해진 고문이 발각될 게 두려워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곧장 화장터로 향했다. 이

때 시노트 신부가 목숨을 걸고 장의차 바퀴 밑에 누워 버렸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와 구타를 당했으며 장의차는 화장터로 보내려고 했다.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비자 갱신을 거부하였고, 법무부는 4월 25일 시노트 신부에게 출국 통보를 한다. 답동성당에서는 연일 시노트 신부 추방을 규탄하는 미사를 가졌지만 결국 그는 강제 추방되고 만다.

이국 땅에서 추방당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은 말이 없다. 성당 왼편으로 돌아가면 답동성당이 사적 제287호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이 나온다. 인천교구청과 붙어 있는 건물은 사제관이다. 그 앞에서 늙은 고

양이 한 마리가 몸을 잔뜩 웅숭그린 채 낮선 이방인을 올려다보고 있다. 녀석은 겁도 없이 다가와 가르릉 소리를 내며 제 몸을 이방인의 다리에 비벼댄다. 성당 오른쪽 뒤편의 별관은 주교관이다. 주교관 역시 성당과 마찬가지로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다. 성당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 양 쪽에 성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앞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묘사한 조형물이 있다. 성당의 문을 밀었다. 소리도 없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산 역사인 답동성당은 1937년에 완공된 모습 그대로이다.

오래된 천막 두 채

창을 통과해 들어온 햇살은 누군가 한번 어루만져 주기라도 한 듯 부드럽기만 하다. 그 탓에 성당 안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온풍기 하나 없지만 푸근한 기운이 느껴졌다.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오후 미사를 위해 미리 찾아온 이도 있지만,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잠시 들렀는지 기도를 올리다 조용히 성당을 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천장은 돔형이다. 움푹 파인 반원형 천장의 양쪽 끝에 성당 바닥에서 솟아오른 기둥이 맞닿아 있다. 양쪽에 모두 여덟 개씩의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등이 매달려 있다. 맨 앞에는 바깥쪽으로 돌출된 돔형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성당 모형이, 성당의 꼭대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있다. 절로 마음이 편해지고 자리에 앉으면 금세 잠에 빠져들 수 있을 만큼 푸근하기만 하다.

성당 입구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맨 앞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마흔 걸음쯤 되며, 성당의 폭은 스물 두 걸음 정도가 된다. 양쪽의 격자창에는 원색의 모자이크화가 그려져 있고 그곳을 통과해 들어 온 햇살은

성당 안에서 산산조각 나며 자잘한 파편이 되어 성당 내부를 가득 채웠다.

1978년, 이곳을 찾았던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도 아마 마음의 평온을 얻었으리라. 노조 대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던 그 해 2월 21일 새벽, 동일방직의 노동자들은 황당한 일을 당해야 했다. 전체 1,3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1,000여 명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서는 노동자들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그때 회사에 매수된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과 입에 분노를 들이부었다.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회사 측의 비인간적인 행위였다. 이에 동일방직 노조원들은 인천 시내 곳곳에서 항의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그때 답동성당 역시 농성장 가운데 하나였다.

그로부터 스물 다섯 해가 지났건만 세상은 그리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성당에서 나와 성당 앞 광장을 걸으면서 뒤돌아보니 십자가는 차갑고 맑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다.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1973년에 건립되어 2000년 10월 27일 시민의 쉼터로 바뀌어 사라질 때까지 시민회관은 인천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광장 입구에 자리잡은 두 채의 천막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 안을 기웃거리보았다. 서너 명의 노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오른쪽 천막은 숙소로 사용하고, 왼쪽 천막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듯 했다. 대우자동차 판매노동조합 위원장인 전병덕(43) 씨는 지난 2002년 5월 9일부터 그곳에서 농성을 했다고 한다.

1년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으니 성당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전병덕 씨는 손사래를 친다. 그들에게 답동성당은 그들의 고단한 몸을 마음 편히 뉘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미 여러 명의 노조 간부가 구속된 대우자동차 판매노조는 답동성당에 구원의 손길을 청했고, 성당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가톨릭회관 앞길로 나오니 건물에 가려 더 이상 답동성당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처럼 이 말이 실감되는 순간은 없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답동 언덕에 백 년이 넘도록 인천을 굽어보며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었던 답동성당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리라.

옛 인천시민회관

택시기사는 무슨 시민공원이냐고 되물었다. 옛 인천 시민회관이라고 고쳐 말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인천 사람치고 옛 인천시민회관 앞 사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택시기사도 이방인의 냄새를 맡았나 보다.

1987년 6월항쟁처럼 일정한 성과를 거둔 항쟁들은 역사적 조명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많은 구속자를 내고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며 공안탄압을 불러일으키는 항쟁들은 오랜 세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기 마련이다. 건대항쟁이 그러하며 가까이는 지난 1996년 연세대를 점거했던 한총련의 항쟁도 그러하다. 또한 1986년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5·3항쟁도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1986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반발하여 대학생

들은 '파쇼헌법 철폐투쟁 및 개헌서명운동 추진본부 결성식'을 치르고 신민당과 민주협은 공동으로 '1천만 개헌서명운동'을 펼치게 된다. 신민당은 독자적으로 3월 11일 '개헌추진위원회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이른바 '개헌 현판식 대회'로 불리는 대중집회를 추진한다. 이 대회는 뜨거운 호응을 불러 일으켜, 3월 30일 광주대회에는 3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5공 정권은 임기 내 개헌불가라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신민당과 재야를 분리하고, 개헌논의를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신민당은 자신들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정치적 협상을 위해 재야와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월 3일,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가 치러진다.

이날 낮 1시부터 대회장인 인천시민회관 앞에는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잔뜩 몰려와 있었다. 이들은 그곳에서 2백 미터 떨어진 민정당 제1지구당사, 제2지구당사를 찾아가 항의 표시로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게 되었고 시위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날 시위로 모두 319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 149명이 구속되고 55명이 수배되었다.

5·3항쟁은 이후 공안탄압을 야기하였으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과 서울노동운동연합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해체되었고 문익환, 김문수, 이부영, 이창복, 여익구, 장기표 등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배되었다.

허나 시민회관은 없다. 시민회관이 있던 자리와 그 앞 광장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그곳에 시민회관이 있었음을 알리는 커다란 표석만이 서 있을 뿐이다. 1973년 12월 건립되어 2000년 10월 27일 시민의 쉼터로 바뀌어 사라질 때까지 시민회관은 인천 시민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제 시민회관은 헐리고 반듯한 공원이 자리잡았으나 새로 생긴 공원은 그닥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듯 하다. 사

거리의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어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가로지르는 길로 사용될 뿐,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두세 명을 빼곤 겨울 바람만이 맴돈다. 다만, 공원 끝에 있는 농구장에 두툼한 점퍼를 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중무장한 청소년들이 농구공을 튀기고 있어 그나마 이곳이 공원이란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성된지 얼마 안 되어 몇 그루의 상록수를 제외하고 메마른 가지의 나무들만 등성등성한 옛 시민회관

그 황량함과 쓸쓸함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며 누구도 시간을 비껴라매어 둘 수는 없다.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 몇 그루의 상록수를 제외하곤 이파리 하나 없는 메마른 가지의 나무들만 드문드문 서 있는 옛 인천시민회관 터. 하지만 저기 공원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한 명. 그가 있어 바로 이곳이 인천임을, 인천행 국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신산스러움의 정체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오늘 밤에는 기어이 눈이 오려나 보다.

손 홍 규

1975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최명희 청년 문학상 소설 수상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